

# 적자부채가계의 지출구조 및 유형별 특성

## The Expenditure Pattern of the Indebted Overspending Households

성균관대학교 소비자가족학과

부교수 이 성 립

인천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

교 수 성 영 애

Department of Consumer & Family Sciences, Sungkyunkwan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Seong Lim Lee

Department of Consumer and Child Studies, University of Incheon

Professor : Young Ae Sung

### ◀ 목 차 ▶

I. 서론

II. 선행연구 고찰

III. 연구방법

IV. 분석결과 및 논의

V. 결론

참고문헌

### <Abstract>

The causes of indebted overspending were investigated by examining household expenditure patterns using the data from the 2002 Family Expenditure Survey. The five major expenditure categories were identified by factor analysis, and the six types of indebted overspending were clustered. About 28% of the indebted overspending was done out of necessity, and food, utilities, housing, and health care accounted for about 42% of the household expenditure. Luxury spending accounted for about 25% of the overspending by indebted households who spent about 24% of the household expenditure on clothing, entertainment, and private education. Cars (22%) and education (20%) were found to be other major causes of indebted overspending. Paying off debt and durable purchases were identified as the major causes of indebted overspending, but had a low frequency. Finally, the financial status of the four major types of indebted overspending households was evaluated.

**주제어(Key Words):** 적자부채가계(Indebted overspending households), 지출구조(Expenditure pattern), 가계재무상태(Household financial status)

## I. 서론

가계의 재무상태는 저량의 가계자산과 부채를 통하여 측정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계소득과 지출의 흐름을 통하여 발생한 가계수지를 통하여서도 파악될 수 있다. 일정기간동안 발생한 가계수지의 결과는 흑자 또는 적자로 나뉘게 되는데, 가계적자는 합리적인 가계의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고, 가계적자가 발생하게 되면 소비지출의 감소나 소득의 증가, 자산의 매각, 부채의 이용 등을 통하여 적자의 폭을 줄여나가게 된다. 그러나 만성적인 가계적자나 과도한 소비지출 때문에 발생한 적자, 과도한 부채의 이용으로 이어지는 가계적자는 가계경제의 안정을 크게 저해한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가계적자 현상은 모든 소득계층에서 발견되고 있다. 2005년도 전국가구 중 적자가계의 비율은 28.8%로 나타났으며, 소득 하위 30%의 경우는 51.9%가, 소득 상위 12.9%가 적자가구였다(통계청, 2005). 가계부채의 증가현상은 가계적자를 메우는 수단으로 부채의 활용도가 커졌음을 의미한다. 가계부채의 확대는 가계신용문제로 확대될 수 있는데,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신용불량자수가 다소 감소하였다고는 하나 2006년 3월 신용불량자는 293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어 생산가능인구의 7%가 신용불량문제로 고통받고 있다. 가계파산의 원인은 실업이나 소득감소로 인한 생활고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지만 과도한 소비, 비합리적 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서병호, 2007) 소비지출을 목적으로 한 가계부채의 합리적 이용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과연 가계부채가 가계지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가계지출중 어떤 부분에 기인한 것인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사례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계의 지출구조를 분석함으로써 가계부채의 지출용도를 파악하여 보고자 한다. 특히 지출이 소득을 초과하는 적자가계로 분석대상을 한정함으로써 부채를 통하여 충당하고자 하는 지출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적자부채가계의 지출구조의 차이에 근거하여 적자부채가계의 유형을 구분하여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적자부채가계유형별 부채부담 및 소비지출 구조,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가계정책 및 가계재무설계, 교육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II. 선행연구 고찰

### 1. 가계지출의 유형화

가계소비구조는 소비비목의 분류를 바탕으로 각 비목의

지출규모나 지물비중을 통하여 분석된다. 소비비목은 아주 세분화된 비목에서부터 2-3개 차원의 큰 비목으로 유형화되어 분류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비목의 분류체계는 연구나 조사목적에 따라 다르며 이러한 현상은 소비비목은 서로 관련된 항목끼리 조직화 또는 유형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소비지출을 분류하는 방법은 품목별로 분류하거나, 용도로 또는 욕구를 반영하여 분류하는 방식이 있다. 용도별 분류방식은 소비욕구를 반영하는 분류방식으로 단순 품목별 분류보다는 가계소비에 대한 보다 많은 함의를 보여준다. Hoyt(1938, 손상희 1993에서 재인용)에 따르면 서로 다른 소비항목은 서로 영향을 미치며 소비항목들은 서로 결합되어 하나의 패턴을 이루어 가계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데, 어떠한 소비항목이 서로 더 관련이 되는지는 그 항목들이 충족시킬 수 있는 욕구와 관련되기 때문이다(손상희, 1993).

소비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소비지출비목을 분류하는 방법은 소득탄력성을 이용하는 방식과 요인분석을 통하여 분류하는 방식이 제시되고 있는데 가장 오래된 항목분류이며 가장 흔한 방법 중의 하나는 Kirk가 제시한 방식으로 소비항목을 필수재와 사치재로 나누는 것이다. 필수재란 일반적으로 가계가 소비해야 하는 항목을, 사치재는 바람직한 상태를 가져다주는 하지만 꼭 소비해야 하는 것은 아닌 항목을 말하며, 필수재와 사치재를 구분하는 조작적 방식은 소득탄력성을 기준으로 한다. 즉 소득탄력성이 0-1의 범위에 속할 경우는 필수재로, 1보다 클 경우는 사치재로 간주하는 것이다. Douglas(1980)는 이러한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여 4개의 비목으로 1차재, 2차재, 3차재, 4차재라고 명명하였다. 1차재는 지출탄력성이 낮은 비목이며, 2차재는 탄력성이 1에 가까운 비목, 3차재는 탄력성이 1보다 크지만 그 비율이 일정수준에 이르면 증가율이 감소하는 큰 비목, 4차재는 소득증가에 따라 지출이 무한정 증가하는 비목을 말한다.

이러한 소득탄력성에 따른 비목의 유형화를 시도한 우리나라의 연구에는 양세정(1991)과 김정현과 최현자(2002)가 있다. 양세정(1991)은 1985년과 1990년의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소비지출비목을 소득탄력성에 따라 열등재, 기본재, 준선택재, 선택재로 분류하였다. 월세, 담배 등이 열등재로 분류되었고, 통신, 광열·수도, 외식 외 식료품, 공공교통, 이·미용, 내의, 신발, 보건의료 등이 기본재로 분류되었으며, 교육, 스웨터·셔츠, 식기 및 주방용품, 주택설비수리, 가정용기구, 외식 등이 준선택재로, 외의, 교양오락, 장신구, 일반가구, 개인교통 등이 선택재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방식은 사회와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1985년, 1990년, 1999년 자료를 각각 분석하여 소비비목을 분류한 김정현과 최현자(2002)에 따르면 같은 국가 내라도 연도에 따라 분류되는 비목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소비지출의 유형화는 가계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요인분석을 통하여 소비지출비목의 분류를 시도한 연구에는 손상희(1993)가 있다. 소비패턴의 구조화에 관한 손상희(1993)의 연구에서는 1987년도 미국가계 소비지출조사를 이용하여 31개의 비목의 소비지출비중과 각 비목의 소유여부를 종속변인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많은 비목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한 결과 설명 될 수 있는 총분산이 16.2% 밖에 되지 않아, 최종 12개의 비목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하였는데, 그 결과 개인교통, 자동차보유대수, 주거비목을 포함하는 개인교통/주거차원, 오락문화활동 회원권 및 관광, 외식, 의복신발 및 장신구, 항공, 야외여가활동, 주거를 포함하는 사회적소비/주거차원, 가내식품, 의료보험, 의약품 및 도구, 전화, 개인교통을 포함하는 건강 및 가내필수재/개인교통차원의 3개의 차원으로 유형화되었다. 이러한 요인분석의 결과를 이용하여 군집분석을 한 결과 주거지배형 소비유형, 온건균형적 소비유형, 개인교통지배적 소비유형, 건강 및 가내필수재 강조 소비유형, 사회적 강조 소비유형의 5개의 소비패턴유형이 규명되었다. 이 연구는 소비패턴의 질적인 연구를 위한 개념적, 방법론적으로 유용한 시사점을 주었고, 사회, 문화, 가계특성에 따라 주요소비문항이 다르기 때문에 지속적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하고 있다. 본 연구는 손상희의 연구방법에 따라 적자부채가계라는 독특한 가계특성을 가진 가계유형에 대해 소비지출의 유형화를 시도하고자 한다.

## 2. 적자부채가계의 가계지출

생애주기가설의 관점에서 보면 단기간 가계적자현상이나 부채의 이용은 합리적 관리방법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생애주기사건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가계적자나 가계부채의 이용은 조정되고 극복되어야 하는 문제로 인식되며 특히 장기적인 가계적자나 과도한 부채는 가계안정에 치명적일 수 있다. 따라서 가계적자나 부채는 가계복지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의 중요한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

먼저 가계적자와 소비지출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살펴 보면 박명희, 이승신과 배미경(1996)이 있다. 이 연구는 소비가 소득을 초과하는 현상인 가계적자는 소비지출구조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적자가계를 과소비가계로 명명하여 과소비가계와 과소비하지 않는 가계의 자산과 부채, 그리고 소비지출 수준을 비교, 분석하였다. 1994년 도시가계조사자료를 분석하였는데, 과소비가계에서는 식비, 외식비, 광열수도비, 용모유지비, 공공교통비, 통신비, 기타지출비 등 필수재적 성격의 비목지출 뿐만 아니라 교육비, 문화레저비, 의료비, 개인교통비와 같이 높은 생활의 질을 나타내는 지출수준도

비과소비가계보다 높았다. 즉 과소비가계는 비과소비가계에 비해 소득은 낮으면서 지출 수준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통 가계적자는 저소득층에서 소득의 부족으로 발생하지만, 소득수준이 높다고 해서 적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었다. 평균소비성향인 소득 대비 지출 비율은 가장의 연령이 높을수록, 수입원 수가 적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가를 소유하고 있는 가계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적자, 부채, 소비지출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는 남상호와 임병인(2006), 그리고 이성림(2005)의 연구가 있다. 적자가계수지를 분석한 남상호와 임병인(2006)에 따르면 가계가 적자상태에 빠지면 자산을 매각하거나 빚을 내 지출을 충당하고 있어 가계적자와 부채는 상호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성림(2005)도 적자가계를 가계지출이 가계소득을 초과하는 가계로 정의하고 2002년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자산 및 부채변동, 소득 및 지출구조, 그리고 과소비·부채 가계와 관련이 있는 변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본 결과, 과소비의 89%는 자산으로, 11%는 부채로 충당되었고, 과소비부채의 원인이 되는 주요 비경상지출은 대학교납입금, 자동차 구입, 교육비 송금이며, 사치적인 소비지출임을 밝혀냈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가계의 지출구조를 분석함으로써 가계부채의 지출용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적자부채가계의 가계지출 구조를 구성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 연구문제 2: 가계지출구조에 따라 적자부채가계의 유형은 어떻게 분류되는가?
- 연구문제 3: 적자부채가계유형별 가계의 부채부담 및 가계지출,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적자가계는 가계지출이 가계소득을 초과하는 가계로 정의하였다. 가계소득은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을 합한 것으로 경상소득은 급여소득과 상여금, 사업 및 부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포함하고 비경상소득은 경조소득, 폐품매각대금, 기타 비경상소득을 포함하였다. 가계지출은 실질적으로 가계의 자산이 감소되는 지출로서 재화와 용역을 구입하는데 지출한 소비지출과 조세와 사회보험료 이자지출, 각종 부담금, 교육비 송금 등 비소비지출을 합한 금액이다. 월

과 계절에 따른 일시적인 변동을 통제하기 위하여 소비와 지출은 연간 월 평균 자료를 산출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자부채가계는 1년 동안의 가계수지에서 지출이 소득을 초과하는 동시에 주택관련 부채, 월부 및 외상, 일반부채가 유입된 가계로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적자부채가계의 지출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지출비목의 지출비중을 인자로 하여 요인분석을 하였다. 가계지출은 경상지출과 비경상지출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는데, 경상지출은 가계가 평상시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구입하는데 사용되는 지출로서 (1)음식물비, (2)수도광열비, (3)주거유지비, (4)가사용품 및 가사서비스 구입비 (5)피복비 및 신발비, (6)의약품 구입비 (7)교육비(대학납입금 제외), (8) 교양오락비 서비스 비, (9)교통통신비, (10)개인유지비, (11)조세 및 사회보험료를 포함한다. 비경상지출은 가계가 평상시 경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출 이외의 지출로서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지출이며 비교적 고액의 지출이 소요되는 지출로서 포함된 항목은 다음과 같다. (1)주택 설비 및 수선비, (2)일반가구 구입비, (3)가정기기 구입비, (4)교양오락용품기구 구입비, (5)자동차 구입비, (6)관혼상제비, (7)의료서비스, (8)대학납입금, (9)교육비 송금, (10)이자지불, (11)부채상환.

가족생애주기는 가장의 연령과 첫 번째 자녀 연령과 학교급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가구주 연령이 40세 이하이면서 자녀가 없는 가계는 신혼기, 첫 자녀의 연령과 학교급에 따라 첫 자녀 영유아기, 첫 자녀 초등학교 교육기, 첫 자녀 중학교 교육기, 첫 자녀 대학 교육기로 구분하였다. 가구주 연령이 40세 이상 60세 미만이고 첫 자녀가 학교교육을 마친(또는 학교교육을 받는 자녀가 없는) 가계는 진수기 이후로 하였다.

### 3.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2002년 도시가계조사 원자료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도시가계조사는 한 달을 기준으로 매일 매일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품목별로 가계부에 기입하는 방식으로 조사하고 가계부 기입은 연중 내내 이루어지므로 기억에 의존한 지출조사에 비해 소득과 지출에 관한 자세하고도 정밀한 자료를 제공한다. 도시가계자료는 도시에 거주하는 가구원수 2인 이상의 근로자 가구에 대해서만 소득 자료(저축, 자산, 부채 변동을 포함)를 제공하고 있어서 분석대상은 임금이나 봉급을 받아 생활하는 2인 이상의 도시근로자가계로 한정되는 제한점이 있다.

자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도시가계조사를 분석자료로 사용한 것은 전국규모 표본으로 본 연구의 주요 분석대상인

적자여부와 부채보유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며, 적자부채의 용도를 파악할 수 있는 가계지출에 관하여 다른 어떤 자료보다도 상세하고 정밀한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연간 소득과 지출, 부채와 자산 변동 상태를 완전히 알 수 있는 1년 12개월 동안 가계수지 자료를 제공한 1,896 가구 중 최종적인 분석 대상인 적자부채가계는 222가구이다. 표본의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었다.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월평균 가계소득은 223만원이며 월평균 가계지출은 약 265만원, 평균 초과지출 분은 약

<표 1> 표본특성

구분		평균(STD) / 빈도(%)
표본수		222 (100.00)
가계소득(만원)		223 (114)
가계지출(만원)		265 (140)
주택	없음	79 (35.59)
	있음	143 (64.41)
자동차	없음	86 (38.74)
	있음	136 (61.26)
연간 부채 유입 총액(만원)		814.20(1390.13)
주택관련부채		1.35 (14.98)
일반부채		385.11 (1205.03)
월부 및 외상		427.74 (600.00)
연간 부채 상환 총액(만원)		738.98 (1430.58)
주택관련부채		45.01(406.31)
일반부채		332.95 (1111.23)
월부 및 외상		361.02(490.83)
가구원수(명)		3.59 (0.98)
가구주 연령(세)		42.90 (8.97)
가구주 성별	여자	40(18.02)
	남자	182(81.98)
가족 생애주기	신혼기	21 (9.46)
	첫 자녀 영유아기	20 (9.01)
	첫 자녀 초등학교기	48 (21.62)
	첫 자녀 중학교기	46 (20.72)
	첫 자녀 대학교육기	59(26.58)
	진수기 이후	28 (12.61)
가구주 학력	중학교 이하	48 (21.62)
	고등학교	99 (44.59)
	전문대학	20 (9.01)
	대학교 이상	55 (24.77)
소득자 수	1명	149 (67.12)
	2명 이상	73 (32.88)

42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가계소득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어서 초과지출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1년 동안 가계에 유입된 연간부채금액은 814만원이며 이중 일반부채는 385만원(부채유입 총액의 47.3%), 월부 및 외상 427만원(부채유입 총액의 52%)으로 조사되었다. 부채유입 금액에 비해 부채상환 금액은 이보다 낮은 수준이다. 연간 부채 상환 수준은 유입 일반부채의 약 86%, 월부 및 외상의 약 84%이며, 주택관련 부채 상환 금액을 합하면 연간 부채상환금액은 연간 유입 부채의 약 91%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분석방법

첫째, 적자부채가계의 지출구조를 구성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11가지 정상지출 비목과 11가지 비정상지출 비목의 지출비중을 인자로 한 요인분석을 실행하였다. 둘째, 가계지출구조에 따라 적자부채가계의 유형을 범주화하기

위하여 첫 번째 단계에서 추출된 요인점수를 기준으로 군집 분석을 하였다. 셋째, 적자부채가계유형별 부채보유 특성 및 가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범주별 평균과 빈도의 유의도를 검정하는 GLM분석과 카이제곱 분석을 실행하였다. 넷째, 적자부채가계유형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적자부채가계유형을 종속변수로 하고 가계의 경제상태, 부채수준 및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항로지분 분석을 하였다.

IV. 분석결과 및 논의

1. 적자부채가계의 지출구조

요인분석을 통하여(〈표 2〉) 적자부채가계의 지출구조를

〈표 2〉 적자부채가계의 지출구조 요인분석 결과

변수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공통 분산비
수도광열비	.76	-.18	.06	.01	-.22	.66
음식물비	.72	-.15	.21	-.02	-.27	.67
주거유지비	.53	-.08	.11	-.17	.27	.40
의약품 구입비	.47	.05	-.28	-.19	-.08	.34
의료서비스	.32	.10	-.29	-.10	.10	.22
교육비 송금	-.46	-.05	-.35	-.30	-.05	.42
조세 및 사회보험료	-.65	-.06	.07	-.19	-.04	.47
관혼상제비	-.05	.73	.01	-.09	.01	.55
일반 가구 구입비	-.06	.60	.02	-.04	-.04	.37
가사용품 및 가사서비스 구입비	.17	.52	.34	-.09	.07	.43
가정기기 구입비	-.05	.50	-.13	.25	-.12	.35
피복 및 신발비	-.03	.01	.60	-.21	-.29	.49
교양오락비 서비스	-.03	.05	.47	.14	-.19	.28
교양오락용품기구 구입비	-.04	.18	.38	.02	.09	.19
교육비	.15	-.25	.36	-.05	-.06	.22
주택 설비 및 수선비	.03	.28	-.40	.12	-.11	.27
대학 납입금	-.16	-.06	-.45	-.03	-.28	.31
부채상환	-.09	.05	.09	.83	.00	.70
이자지불	.04	-.04	-.10	.74	.03	.56
자동차 구입	-.31	-.10	-.03	.12	.78	.72
교통통신비	.25	-.25	.08	.29	-.39	.37
개인유지비	-.10	.07	.02	.02	-.61	.39
고유값	2.60	1.76	1.71	1.69	1.59	
분산의 백분율	27.80	18.78	18.33	18.10	17.00	
누적백분율	27.80	46.58	64.91	83.00	100	-

〈표 3〉 적자부채가계의 군집분석 결과

구분	빈도(%)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군집 1 생계형	63 (28.38)	1.22 (0.59)	a	-0.27 (0.50)	c	0.21 (0.69)	b	-0.22 (0.51)	d	-0.20 (0.76)	b
군집 2 과소비형	53 (23.87)	-0.18 (0.44)	bc	-0.05 (0.70)	c	0.97 (0.70)	a	-0.16 (0.55)	d	-0.55 (0.46)	b
군집 3 자동차구입형	48 (21.62)	-0.56 (0.53)	cd	-0.03 (0.51)	c	-0.18 (0.62)	b	0.44 (0.70)	bc	1.29 (0.90)	a
군집 4 교육형	44 (19.82)	-0.85 (0.79)	d	-0.28 (0.56)	c	-1.08 (0.63)	cd	-0.47 (0.61)	d	-0.41 (0.79)	b
군집 5 내구재구입형	6 (2.70)	-0.80 (0.55)	cd	4.39 (1.41)	a	0.04 (0.30)	ab	-0.44 (0.33)	cd	0.17 (0.26)	ab
군집 6 기타	5 (2.25)	0.52 (0.37)	b	1.74 (1.00)	b	-1.86 (1.38)	d	1.13 (0.75)	b	-0.61 (0.64)	b
군집 7 부채형	3 (1.35)	-0.21 (0.33)	bcd	-0.45 (0.22)	c	0.06 (0.37)	abc	6.07 (1.70)	a	-0.06 (0.51)	ab
F값		71.73***		61.76***		44.41***		63.54***		34.25***	

\*\*\* $p < .001$ , a,b,c,d Scheffe test

구성하는 요인 5가지를 추출하였다. 요인부하값 0.35를 기준으로 공통요인을 추출한 결과, 첫 번째 요인에 수도광열비, 음식물비, 주거유지비, 의약품구입비, 교육비 송금, 조세 및 사회보험료가 포함되었다. 이중 수도광열비, 음식물비, 주거유지비, 의약품구입비는 요인1과 양의 관계, 교육비 송금, 조세 및 사회보험료는 부의 관계가 나타났다. 수도광열비, 음식물비, 주거유지비, 의약품구입을 위한 지출 비중이 높을 경우 교육비 송금과 조세 및 사회보험료 지출 비중이 낮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관혼상제비, 가구·가사용품 및 가사서비스·가정기기 구입비의 4가지 지출비목이 동일한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이들 비목은 관혼상제를 위한 특별지출과 내구재를 구입하기 위한 비정상지출 비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인3은 피복 및 신발비, 교양오락 서비스와 교양오락용품기구 구입비, 교육비(대학납입금 제외), 주택설비 및 수선비와 대학납입금을 포함한다. 교육비는 학교납입금, 사교육비, 문방구 구입비를 포함하는데, 이중 사교육비의 비중이 가장 크다. 요인3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피복 및 신발비, 교양오락 서비스와 교양오락용품기구 구입비, 교육비 항목들은 주로 생활의 질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선택적 지출비목들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납입금과 주택설비 및 수선비는 요인부하값이 마이너스로 나타나 요인 3과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4는 부채상환과 이자지불 비목을 포함하고 있다. 요인5는 자동차구입비과 교통통신비, 개인유지비를 포함한다.

교통통신비와 개인유지비는 요인5와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동차 구입을 위한 지출비중이 클 경우 교통통신비와 개인유지비에 대한 배분이 작음을 시사한다.

## 2. 적자부채가계의 유형 분류

지출구조의 차이에 따라 적자부채가계의 유형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요인분석으로 추출된 5가지 요인의 요인점수(Factor Score)를 기준으로 군집분석을 하였다. 분류된 군집별 빈도와 요인점수는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적자부채가계유형은 7집단으로 분류되었는데, 군집1은 다른 군집에 비해 요인1의 요인점수가 매우 높다. 수도광열비, 음식물비, 주거유지비, 의약품구입비 등 필수적인 비목에 지출이 집중되어 있고 부채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요인4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생계형' 가계라고 명명하였다. 생계형 가계에는 63가구가 포함되어 본 연구에서 분석한 적자부채가계 중 28.4%가 이 유형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규모가 큰 군집은 군집2이다. 군집2는 다른 군집에 비해 요인3의 요인점수가 높고 요인4의 요인점수가 낮은 특징을 보인다. 피복 및 신발비, 교양오락을 위한 지출, 사교육비 등 선택적 지출 비중이 높은 가계들이기 때문에 군집2는 '과소비형' 이라고 명명하였다. 적자부채가구 중 53가구(23.9%)가 과소비형으로 분류되었다.

군집3은 요인5의 요인점수가 높기 때문에 자동차 구입으로 인하여 적자부채가계가 된 가구들이다. 따라서 군집3은 '자동차구입형' 이라고 명명하였다. 자동차구입형에 48

〈표 4〉 적자부채가계유형별 가계지출 요인의 차이

	군집 1 생계형		군집 2 과소비형		군집 3 자동차구입		군집 4 교육형		전 체	GLM
	비율	표준편차	비율	표준편차	비율	표준편차	비율	표준편차		
요인 1-생계비	42.40 (8.86)	a	27.70 (5.43)	b	21.08 (5.55)	c	22.28 (6.67)	c	29.48 (11.23)	114.0***
요인 1-교육비송금	4.50 (2.64)	c	10.71 (5.55)	b	8.29 (4.83)	bc	24.75 (18.19)	a	11.24 (11.77)	44.36***
요인 2-내구재구입	3.00 (1.84)	ab	3.55 (2.85)	a	2.84 (2.50)	ab	1.89 (2.07)	b	2.87 (2.38)	4.17**
요인 3-선택적지출	17.79 (8.63)	b	24.97 (8.58)	a	11.61 (5.64)	c	9.65 (5.54)	c	16.47 (9.42)	43.02***
요인 3-주택수선 및 대학납입금	1.84 (4.19)	b	2.02 (3.55)	b	3.31 (5.63)	b	11.11 (10.07)	a	4.18 (7.07)	24.56***
요인 4-부채상환	11.15 (11.72)	b	21.17 (23.50)	ab	32.80 (39.76)	a	12.07 (20.66)	b	18.90 (26.49)	8.05***
요인 5-자동차구입	0(0)	b	0.08 (0.60)	b	27.81 (15.58)	a	1.55 (7.18)	b	6.77 (14.13)	138.20***
요인 5-교통통신 및 개인 유지비	25.64 (7.87)	a	28.60 (6.45)	a	20.67 (4.39)	b	25.41 (9.42)	a	25.20 (7.72)	10.23***

\*\*p<.01 \*\*\*p<.001, a,b,c Scheffe test

가구가 포함되며 분석대상 적자부채가계의 약 21.6%를 차지한다.

군집4로 분류된 가구는 44가구(19.8%)이며 모든 요인점수가 마이너스 값으로 나타났다. 군집 4의 구체적인 지출구조를 알아보기 위하여 지출구조를 구성하는 요인들의 지출비중을 분석한 결과(〈표 4〉)를 살펴보면, 교육비송금과 조세 및 사회보험료 지출, 교통통신 및 개인유지를 위한 지출 비중이 높고 생활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지출과 관혼상제 및 내구재 구입을 위한 지출 비중이 낮다. 다른 집단에 비해 교육비 송금과 대학납입금의 교육비 지출 부담이 크며, 조세 및 사회보험료와 개인유지비 지출 비중이 높은 것은 군집4가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활수준이 높음을 시사한다. 교육비 송금과 대학납입금의 교육을 위한 지출 비중이 높다는 특성에 주목하여 군집4는 '교육형'이라 명명하였다.

군집5는 관혼상제나 내구재 구입을 위한 지출이 이루어진 특징을 보이고(내구재구입형), 군집7은 부채상환을 위한 지출 부담이 매우 큰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부채형). 내구재구입형에는 5가구가 분류되었고 부채형에는 3가구가 분류되었다. 군집6은 생계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지출, 내구재 구입, 부채상환 부담과 주택설비 및 수선 혹은 대학납입금 지출이 있는 가구들이며, 다섯 가구만이 군집6으로 분류되었다(기타).

이상의 군집분석 결과 적자부채가계는 거의 모두 생계형,

과소비형, 자동차구입형, 교육형으로 분류되고, 부채형과 내구재구입형, 기타 유형은 14가구에 불과하여 빈도가 매우 낮다. 다음은 빈도가 낮은 세 가지 유형을 제외하고 적자부채 유형별 부채부담, 소득 및 가계지출, 가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 3. 적자부채가계 유형별 부채부담 차이

〈표 5〉에서 적자부채 가계유형별로 연간 유입 부채규모를 살펴보면 자동차구입형 가계에서 1567만원으로 가장 크다. 일반부채와 월부 및 외상 모두 부채 수준이 가장 높는데 다른 유형과 비교하여 월부 및 외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다음으로 부채유입규모가 큰 유형은 과소비형이며 과소비형 집단의 연간 평균 부채 유입금액은 673만원이고 이중 월부 및 외상의 비중이 일반부채 비중보다 높다. 교육형의 연간 부채 유입규모는 582만원이고 다른 집단과 달리 월부 및 외상보다 일반부채규모의 비중이 보다 크다. 생계형 가계의 연간 평균 부채 유입규모는 약 210만원으로 나타나 부채규모가 가장 작고 이중 약 53%는 월부 및 외상 약 45%는 일반부채이다.

적자부채가계의 연간 부채상환규모는 연간 부채유입규모보다 작아서 부채가 축적되는 양상을 보인다. 주택관련 부채는 연간 유입액이 없는 가계에서도 기존의 주택관련 부채가 있는 경우 부채상환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표 5〉 적자부채가계의 유형별 부채부담 차이-평균(표준편차), Scheffe Test

	군집 1 생계형	군집 2 과소비형	군집 3 자동차구입	군집 4 교육형	GLM/ 카이제곱
가계수	63	53	48	44	
연간 부채유입총액(만원)	210(267) b	673(969) b	1567(1531) a	580(104) b	15.74***
주택관련부채	3(25)	0(0)	0(0)	2(15)	0.59
일반부채	95(202)	245(825)	479(1204)	386(1093)	1.99
월부 및 외상	112(174) c	427(537) b	1088(768) a	192(305) bc	41.45***
연간 부채상환총액(만원)	198(266) b	670(816) b	131.4(1816) a	452(975) b	10.33***
주택관련부채	4(12)	17(37)	163(866)	9(25)	1.67
일반부채	50(112) a	212(656) ab	481(1097) b	224(826) ab	3.16*
월부 및 외상	144(225) bc	441(517) ab	670(650) a	220(369) b	13.97***

\* $p < .05$  \*\*\* $p < .001$ , a,b,c Scheffe test

같다. 과소비형과 생계형 집단은 연간 부채유입규모 대비 부채상환규모의 차이가 크지 않고, 연간 부채 유입 금액의 90% 이상 상환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부채유형별로 구분하여 보면 집단에 따라 부채 상환 상태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자동차구입형 집단에서 일반부채는 부채유입규모와 상환 규모가 거의 일치하고 있어서 연내 유입된 일반부채는 거의 청산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간 유입된 월부 및 외상 부채 대비 상환비율은 약 62%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1년 이상의 장기적인 할부제를 이용하여 자동차 구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자동차구입형과는 달리 과소비와 생계형, 교육형 가계의 월부 및 할부 부채상환규모는 유입규모에 비해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월부 및 부채를 금년도에 상환하고 있거나 금년도 월부 및 외상부채는 연내에 상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월부 및 외상부채와는 달리 일반부채 상환율은 매우 낮는데, 특히 생계형 가계의 일반부채상환규모는 연간 유입규모의 약 53%에 불과하고 교육형 가계의 일반부채유입규모 대비 상환비율은 약 58%에 그치고 있다.

과소비형 가계의 연간 평균 부채유입규모(673만원) 대비 평균 부채상환규모(670만원)를 보면 총 상환율이 100%에 가깝게 나타나서 부채 문제는 심각하게 보이지 않는다. 부채 상환 금액 가운데 일부는 주택관련 부채이고 월부 및 할부 상환 금액이 유입 금액보다 약간 높다. 일반부채는 상환

금액이 유입 금액에 미치지 못하여 일반부채가 축적되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자동차구입형의 부채 유입 수준은 가장 높는데, 일반부채는 연내에 청산되고 월부 및 할부가 남아 있는 경향이 나타났다. 과소비, 생계형, 교육형은 월부 및 할부 부채는 연내에 청산되고 일반부채가 축적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과소비형의 부채 수준은 생계형과 교육형에 비해 다소 높지만 부채상환율 역시 가장 높고, 생계형은 부채유입규모가 가장 작지만 상환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부채가 축적될 가능성이 가장 큰 유형이다.

#### 4. 적자부채가계의 유형별 가계소득과 지출비중

〈표 6〉과 같이 적자부채가계유형별로 가계소득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GLM 분석을 통하여 검증한 결과, 생계형의 소득이 다른 유형에 비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고 다른 세 유형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생계형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약 128만원으로서 다른 유형 소득수준의 약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계지출 수준은 자동차구입형에서 가장 높고, 교육형, 과소비형, 생계형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평균소비성향은 자동차구입형 127%로 가장 높고, 다른 유형에서는 113-116% 사이로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적자부채 유형별 가계지출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생계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음식물비, 수도광열비, 주거



〈표 6〉 적자부채가계의 유형별 가계소득과 지출비중의 차이(%)  
 - 평균(표준편차), GLM, Scheffe Test

		군집 1 생계형	군집 2 과소비형	군집 3 자동차구입	군집 4 교육형	전 체	GLM
가계수		63	53	48	44	208	
가계소득(만원)		128(47) b	240(91) a	270(107) a	266(104) a	223(114)	33.35***
가계지출(만원)		144(47) c	277(100) b	342(128) a	309(134) ab	258.54 (129.73)	39.77***
요인1-생계비	수도광열비	6.09(1.79) a	3.99(1.22) b	3.15(1.23) c	3.37(1.17) bc	4.30(1.86)	51.64***
	음식물비	28.75(5.25) a	21.89(5.16) b	16.31(4.41) c	16.91(5.45) c	21.63(7.23)	71.23***
	주거유지비	5.25(7.65) a	0.87(0.99) b	0.71(1.21) b	0.53(0.76) b	2.09(4.75)	16.35***
	의약품 구입비	2.30(1.88) a	0.94(0.56) b	0.90(0.70) b	1.47(1.28) b	1.45(1.39)	15.38***
	의료서비스	3.43(3.87)	1.67(1.89)	2.33(5.44)	2.51(4.56)	2.53(4.10)	1.85
요인1-교육비송금	교육비 송금	0.61(1.06) b	2.45(3.87) b	1.72(3.12) b	15.52(16.69) a	4.49(9.87)	35.26***
	조세 및 사회보험료	3.89(2.20) c	8.26(3.62) ab	6.57(3.18) b	9.23(6.26) a	6.75(4.42)	19.66***
요인2-내구재구입	관혼상제비	0.15(0.54)	0.26(0.82)	0.02(0.10)	0.02(0.05)	0.12(0.52)	2.59
	가정기기 구입비	0.61(1.11)	0.51(1.03)	0.95(1.88)	0.69(1.61)	0.68(1.42)	0.85
	일반 가구 구입비	0.34(0.56)	0.58(1.54)	0.38(0.92)	0.28(1.11)	0.40(1.07)	0.71
	가사용품 및 가사서비스 구입비	1.89(1.50) a	2.20(1.98) a	1.49(1.41) ab	0.91(0.58) b	1.67(1.55)	6.77***
요인3-선택적지출	피복 및 신발비	5.09(2.39) b	7.21(4.76) a	3.22(1.79) c	3.57(1.78) bc	4.88(3.35)	18.65***
	교양오락비 서비스	2.22(2.57) ab	3.43(3.04) a	2.09(2.15) ab	1.41(1.30) b	2.33(2.49)	6.08***
	교양오락용품기구 구입비	0.93(1.28) b	2.50(2.90) a	1.76(2.10) ab	0.71(0.79) b	1.48(2.06)	9.20***
	교육비	9.54(9.10) a	11.82(8.88) a	4.54(3.86) b	3.95(4.67) b	7.79(7.61)	15.32***
요인3-대학납입금 등	주택 설비 및 수선비	0.65(1.69)	0.72(1.12)	1.10(2.59)	1.60(2.47)	0.97(2.03)	2.36
	대학 납입금	1.19(3.68) b	1.31(3.38) b	2.20(4.63) b	9.50(10.03) a	3.21(6.60)	22.54***
요인4-부채상환	부채상환	9.75(11.11) b	20.47(23.14) ab	30.74(38.89) a	11.20(20.21) b	17.63 (25.87)	7.89***
	이자지불	1.41(2.57)	0.70(1.39)	2.07(4.29)	0.86(1.75)	1.26(2.75)	2.54
요인5-자동차구입	자동차 구입비	0(0) b	0.08(0.60) b	27.81(15.58) a	1.55(7.18) b	6.77(14.13)	138.20***
요인5-교통통신 및 개인 유지	교통통신비	13.21(5.03) a	12.35(4.57) ab	10.50(2.75) bc	9.98(3.15) c	11.69(4.29)	7.26***
	개인유지비	12.42(5.35) bc	16.25(4.73) a	10.17(3.23) c	15.43(8.86) ab	13.51(6.20)	11.69***

\*\*\*p<.001, a,b,c Scheffe test

유지비, 의약품 구입 비중이 두드러지게 높고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지출과 교육비, 교통통신비에 대한 지출 비중도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한다. 전체 가계지출 중 음식물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28.8%로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생계형 가계의 소득수준은 매우 낮는데, 가계 적자의 원인은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지출을 충당할 만큼 소득이 충분하지 못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생계형 가계에서 적자는 일시적인 가계문제라기보다는 적자가 만성적으로 지속되고 부채가 지속적으로 축적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생계형은 빈도가 가장 많은 적자부채 가계 유형으로 나타났는데 적자부채 가계 중 상당수가 가계의 소비결정에 기인하기보다는 소득의 부족에 원인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과소비형에서는 피복 및 신발에 대한 지출 비중이 두드러지게 높고 교양오락을 위한 지출, 교육비, 개인유지비 등 생활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선택적 지출에 대한 비중이 크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과소비형 가계의 소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러한 선택적 지출 비목들 역시 일시적으

로 발생하는 지출이 아니라 지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생계형 가계의 지출구조와 비슷하고, 자동차 구입이나 대학납입금 등과 같이 비교적 정해진 일정 기간 동안 커다란 지출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것과 구별된다. 적자의 원인이 소득의 부족에 기인하기보다 소득에 비해 일상적으로 영위하는 소비수준이 높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군집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과소비형은 생계형 다음으로 빈도가 큰 적자부채가계유형이다.

자동차구입형은 자동차 할부 구입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적자 상태에 있는 가계라고 할 수 있다. 피복 및 신발, 개인유지를 위한 지출과 음식물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교육형은 교육비 송금, 조세 및 사회보험료, 대학납입금에 대한 지출 비중이 다른 유형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다. 반면 교통통신비와 음식물비에 대한 지출 비중은 낮다. 타지에서 자녀가 학교를 다니거나 대학교육을 받는 시기에 가계에 경제적 부담이 크게 되고 자녀의 고등교육을 위한 지원이 적자부채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 적자부채가계의 유형별 사회인구학적 특성

		군집 1 생계형	군집 2 과소비형	군집 3 자동차구입	군집 4 교육형	GLM/카이제곱 (크래머 V)
가계수		63	53	48	44	
가구원수(명)		3.40(0.98)	3.91(0.93)	3.37(0.94)	3.36(1.08)	3.76
가구주 연령(세)		42.06(8.91) b	39.09(7.37) b	41.19(8.60) b	49.09(7.18) a	13.27***
가구주성별	남자	37 (21.89)	50 (29.59)	44 (26.04)	38 (22.49)	31.11*** (0.39)
	여자	26 (66.67)	3 (7.69)	4 (10.26)	6 (15.38)	
가족 생애주기	신혼기	5 (25.00)	7 (35.00)	6 (30.00)	2 (10.00)	57.00*** (0.30)
	첫 자녀 영유아기	6 (30.00)	8 (40.00)	5 (25.00)	1 (5.00)	
	첫 자녀 초등학교기	17 (36.17)	12 (25.53)	18 (38.30)	0 (0.00)	
	첫 자녀 중고등학교기	18 (40.91)	16 (36.36)	3 (6.82)	7 (15.91)	
	첫 자녀 대학교육기	17 (22.08)	10 (12.99)	16 (20.78)	34 (44.16)	
가구주학력	중학교 이하	21 (46.67)	4 (8.89)	5 (11.11)	15 (33.33)	39.51*** (0.30)
	고등학교	34 (36.17)	17 (18.09)	25 (26.60)	18 (19.15)	
	전문대학 이상	8 (11.59)	32 (46.38)	18 (26.09)	11 (15.94)	
소득자 수	1명	50 (35.21)	4 (28.87)	20 (14.08)	31 (21.83)	21.38*** (0.32)
	2명 이상	13 (19.70)	12 (18.18)	28 (42.42)	13 (19.70)	
주택	보유	21(16.03)	41(31.30)	34(25.95)	35(26.72)	34.90*** (0.41)
자동차	보유	19(14.96)	44(34.65)	37(29.13)	27(21.26)	41.23*** (0.45)

\*\*p<.01 \*\*\*p<.001, a,b Scheffe test

〈표 8〉 적자부채가계의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sup>1)</sup>

		생계형	자동차구입	교육형
상수		67.73(15.39)***	-7.90(11.69)	-31.88(12.83)*
log(가계소득)		-4.78(1.15)***	-0.34(0.92)	2.86(0.97)**
소득자 수 (2명 이상)		1.80(0.73)**	1.70(0.61)**	-1.03(0.71)
주택	보유	-1.52(0.61)**	-0.36(0.63)	-0.54E-1(0.71)
log(일반부채)		-0.23E-2(0.42E-1)	0.50E-1(0.37E-1)	0.61E(0.41E-1)
log(월부 및 외상)		-0.96E-1(0.14)	0.97(0.25)***	-0.43(0.15)**
가구원수(명)		0.60(0.39)	-0.56(0.32)	-0.73(0.34)*
가구주 성별	남자	-1.80(0.90)*	0.10(1.04)	-1.13(0.96)
가족생활주기 (vs. 첫 자녀 대학교육기 이후)	신혼기	0.81(1.05)	-1.28(0.95)	-1.71(1.05)
	첫 자녀 영유아기	1.02(1.11)	-1.21(0.97)	-2.86(1.39)*
	첫 자녀 초등학교기	0.66(0.88)	0.90(0.78)	-35.43(1.6E+6)
	첫자녀 중고등학교기	0.24(0.81)	-2.20(0.91)*	-1.85(0.74)*
가구주교육 (vs. 전문대학 이상)	중학교	2.78(0.97)**	0.25(1.01)	1.18(0.88)
	고등학교	1.65(0.70)*	0.48(0.61)	0.71(0.74)
Model test		Log likelihood -142.32		$\chi^2=288.25$ ***
Pseudo R <sup>2</sup>		0.503		

<sup>1)</sup> Multinomial Logit 분석 결과로 준거집단은 과소비형임.

\* $p < .05$  \*\* $p < .01$  \*\*\* $p < .001$

### 5. 적자부채가계의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적자부채가계유형별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다. 교육형 가계의 가구주 연령이 다른 유형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높은 수준의 교육비 지출이 주로 자녀의 대학교육비임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는데, 가족생애주기의 가계유형별 분포에서 첫 자녀 대학교육기 가구가 교육형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어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생계형은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가 우세하며, 가구주의 학력이 대부분 중학교 이하이거나 고등학교 이하로서 다른 유형에 비해 학력이 낮게 나타났고 소득자 수가 1명인 경우가 다른 유형보다 많이 분포한다.

과소비형에 주택과 자동차를 보유한 가계가 보다 많이 분포하고 가구주 학력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은 편이다. 과소비형의 가족생애주기는 첫 자녀 중고등학교기인 경우가 가장 많다. 자동차구입형은 가족생애주기가 첫 자녀 초등학교기인 경우가 가장 많으며, 가구주 학력이 고등학교이고 소득자 수가 2명인 가계가 우세하다.

가계의 경제상태와 부채 유형별 부채부담, 가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적자부채가계의 유형 구분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소득 및 주택보유, 소득자 수 등 가계의 경제상태를 반영하는 변수, 연간 가계에 유입된 일반부채와 월부 및 외상부채 수준, 가구주 성별과 가족생애주기,

가구주 학력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고 적자부채 유형 범주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범위 로짓분석을 한 결과가 〈표 8〉에 나타나 있다. 로짓분석에서 비교기준이 되는 적자부채 유형 범주는 과소비형으로 하였다.

생계형은 과소비형에 비해 가계소득수준이 유의하게 낮고 소득자수가 2명이상인 경우가 보다 많으며, 주택을 보유할 가능성이 낮은 경향이 나타났다. 가구주는 여성일 가능성이 보다 높고 가구주 학력은 고등학교 이하일 가능성이 보다 높다. 생계형은 주로 경제수준이 낮고 학력이 낮은 여성가장 가구를 포함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교육형은 과소비형에 비해 가계소득수준이 유의하게 높다. 부채는 일반부채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나 월부 및 외상부채 수준은 과소비형에 비해 보다 낮다. 또한 과소비형에 비해 가구원수가 유의하게 작다.

자동차구입형은 과소비형과 소득수준과 주택소유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소득자수가 2명이상인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다. 일반부채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월부 및 외상수준은 과소비형에 비해 유의하게 높다.

과소비형은 소득수준이 생계형에 비해 높고 교육형에 비해 낮으며 자동차구입형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 소득자수는 생계형과 자동차구입형에 비해 1명일 가능성이 보다 높다. 일반부채 수준은 다른 유형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지만

월부 및 외상수준은 교육형에 비해 높은 수준이고 자동차구입형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가족생애주기는 첫 자녀 중고등학교기에 과소비형 적자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보다 높다.

## V. 결론

본 연구는 적자부채가계를 대상으로 이들의 지출구조를 파악함으로써 가계의 부채를 유발하는 지출의 내용이 무엇이며 이에 따라 가계를 유형화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적자부채가계유형별로 부채부담, 소비지출구조와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2002년도 도시가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요인분석, 군집분석, GML분석, 카이제곱분석 및 다항로지분석을 실시하였다. 총 222 적자부채가계를 대상으로 분석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적자부채가계의 지출을 구성하는 요인을 찾아내기 위해 22개의 지출항목의 가계지출비중을 변인으로 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5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5개의 요인의 기준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적자부채가계는 7개의 집단으로 유형화되었다. 필수지출비목에 지출이 집중되는 생계형이 가장 많았으며, 상대적으로 선택적 지출비중이 높은 가계들인 과소비형이 그 뒤를 따랐다. 자동차구입으로 인해 적자부채가계가 된 자동차구입형, 다른 집단에 비해 교육비송금과 대학납입금 등의 교육비지출비중이 큰 교육형도 20%내외를 차지하였다. 반면 부채상환부담이 큰 부채형, 내구재구입을 위한 지출이 상대적으로 큰 내구재구입형, 기타유형이 집단으로 분류되었으나 그 빈도가 매우 낮았다. 즉 가계로 하여금 적자상태에 이르고 신규부채를 이용하게 만드는 가계지출요인에 따라 가계를 생계형, 과소비형, 자동차구입형과 교육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의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계형가계는 28%를 차지하여 빈도가 가장 높은 가계유형으로, 소득수준과 가계지출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이다. 평균소비성향은 113%로 다른 유형과 유사하다. 다른 유형에 비해 음식물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고, 수도광열비, 주거비, 의약품비 등 필수적 지출의 비중이 높은 가계로서 지출이 많아서라기보다는 소득이 부족하여 적자가 발생하여 부채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규모는 다른 가계유형보다는 가장 작았지만 일반부채의 상환율이 낮은 편으로 나타났고 월부 및 외상이 조속히 청산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어 가계적자의 장기화가 우려된다. 가계소득이 적을수록, 소득자수가 적을수록,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여성인 경우, 학력이 낮을수록 과소비형보다는 생계형가계에 속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계형가계에

대해서는 소비지출조정을 통한 가계적자해결이나 부채청산을 기대하기 보다는 소득창출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적자부채가계 4가구 중 한 가계는 과소비형으로 분류되었다. 소득수준은 생계형을 제외한 다른 집단과 유사하며 평균소비성향도 유사하다. 피복 및 신발비에 대한 지출비중이 높고 교양오락을 위한 지출, 교육비, 개인유지비 등의 선택성 지출비중이 크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들 선택성 지출비목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비목이라기보다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목인 경향이 있어 비교적 생활수준이 높은 집단으로 파악된다. 부채유입과 상환에 있어 월부 및 외상의 비중이 높은 편이지만 당해 연도에 상환되고 있다는 점은 바람직한 결과이지만 생활수준이 높는데 적자상태에 있다는 것은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소비지출을 줄일 필요가 있는 집단이다. 다른 유형보다 주택과 자동차를 보유한 가계가 많으며 가구주의 학력이 높은 편이다.

셋째, 자동차구입형은 2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유형의 특징은 자동차구입으로 인하여 적자가계가 된 가구로 가계부채규모가 가장 크다. 특히 월부 및 외상규모가 가장 높았는데, 이들의 연내 상환비율은 62%수준에 머물러 1년 이상의 장기할부를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동차구입형은 자동차구입비중이 다른 유형보다 매우 높은 점을 볼 때 자동차 할부 구입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적자상태에 있는 가계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부채상환비중이 높는데 이 때문에 피복 및 신발비, 개인유지비, 음식물비 등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앵겔계수가 낮은 중상위계층이 자동차구입을 하고 있으며 부채상환으로 인해 압박을 받을 경우 선택성 소비지출을 줄이고 있어 나타난 결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 집단의 경우 일시적 적자상태에 처할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평균소비성향이 127%로 가장 높고 부채상환 비중도 매우 높아 갑작스러운 사건에 처할 경우 문제발생가능성이 매우 높다. 부채의 합리적 이용에 대한 교육과 소비지출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집단이다.

넷째, 교육형은 교육비송금과 조세 및 사회보험료, 대학납입금에 대한 비중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집단으로 19.8%가 이에 속한다. 소득은 생계형에 비해서는 월등히 많으며 가계지출수준도 높은 편이다. 연간부채유입규모는 중간 정도이나 일반부채규모의 비중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 일반부채의 상환률은 낮은 편으로 일반부채의 축적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이때 일반부채의 용도는 교육용일 가능성이 높다.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자녀가 대학교육기에 있는 가계일수록 교육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을 위해 적자상태에 처하거나 부채를 이용하는 것은 노후설계와 같은 중요 재무목표

가 포기와 관련되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자산 상태에 근거하여 장단기 설계 작업이 요구되는 집단이다.

본 연구는 다소 오래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는 제한점이 제기될 수 있으나 2002년도는 신용불량 등 과다부채 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제기되었던 시기라는 점에서 적자부채가계의 특성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이 있다. 또한 부채상환을 위한 지출 부담이 매우 큰 부채형과 내구재 구입비중이 높은 내구재형 등 의미 있는 적자부채가계의 유형이 도출되었으나 사례부족으로 특성분석을 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보다 많은 사례를 포함한 연구가 요망된다.

## ■ 참고문헌

- 김정현, 최현자(2002). 소득탄력성을 통해 본 도시가계의 소비지출양식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13(4), 269-292.
- 남상호, 임병인(2006). 소득·소비 분배구조 추이와 양극화에 관한 연구. 2006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 박명희, 이승신, 배미경(1996). 도시근로자가계의 소비와 영향변수-재무비율 분석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4(5), 209-222.
- 서병호(2007). 개인파산의 현황과 시사점. *주간 금융브리프* 16(7), 12-13.
- 손상희(1993). 가계소비패턴의 구조. *소비자학연구* 4(2), 51-72.
- 심영(1993). 가계부채가 소비패턴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학연구* 4(2), 29-50.
- 양세정(1991). 도시가계의 소비지출 양식 변화에 관한 연구-1970~1990년을 중심으로. *소비생활연구* 8, 54-67.
- 이성림(2005). 과소비·부채가계의 가계경제구조 분석 - 과소비·부채가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16(1), 73-95.
- 최현자(1996). 가계의 신규부채수요 결정요인과 부채이용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4(3), 59-73.
- 통계청(2005). 전국가구(도시근로자가구) 소득분위별 적자가구비율. *세계일보*(2006.2.27)에서 재인용.
- Douglas, E. (1980). Changing patterns of consumption expenditures. *Proceedings of the 26th Annual Conference of the American Council on Consumer Interest*, 41-46.
- Hayes, D. J.(1989). Incorporating credit in demand analysis. *Journal of Consumer Affairs* 23(1), 1-20.
- Hoyt, E. E.(1938). *Consumption in Our Society*. New York: McGraw-Hill.

(2007년 7월 4일 접수, 2007년 10월 19일 채택)